

# 오봉(吳鳳)을 찾아서

- 이야기 생산, 유통, 재생산을 중심으로

안영은\*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오봉 이야기-이야기 생산기제
3. 오봉 이야기-이야기 유통 및 재생산
  - 1) 대만의 경우
  - 2) 한국의 경우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우연한 기회에 10년 전에 출판된 《다시 읽은 국어책(고등학교)》(지식공작소, 2002년)을 들춰보다가 유독 눈길이 머무는 글이 있었다. 그것은 손명현 선생이 쓴 논설문〈어떻게 살 것인가?〉이었다. 책의 목차 가운데서도 유독 이 글에 눈길이 갔던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필자의 경우는 전편에 실린 한국의 예보다는 단연 후편에 실린 대만의 예가 훨씬 더 인상 깊었다. 그런데 이 논설문은 적어도 필자에게 만큼은 자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 글의 의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후편의 이야기에서 설명한 대만 원주민들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생활 풍습, 빨간 옷과 빨간 모자를 쓰고 자신이 지정한 곳을 걸어 가다 목이 잘려 나간 선교사 오봉,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 하는 원주민들의 모습에

\* 한국외대 중국학부 시간강사, wonsihn@hanmail.net

대한 충격만이 아주 오랫동안 필자의 뇌리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날조된 혐의가 짙은 것이었다. 이 날조의 혐의가 짙은 이야기를 우리는 15년 동안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피식민지 대만의 슬픈 역사가 삭제되어 있었다. 특히나 피식민지 대만의 원주민과 식민지 청나라의 관리 오봉(吳鳳), 일본 그리고 중국과 다각적으로 얽힌 맥락들도 생략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생략한 채 야만과 문명, 무지몽매와 교화라는 이원대립의 구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후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강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 글은 오봉 이야기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어떻게 유통되었고, 또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오봉(吳鳳1699-1766)은 청대 복건성 평화현(平和縣)사람으로서, 대만 가의(嘉義) 통사(通事)를 역임하다가, 한족과 원주민간의 분쟁 과정에서 한족을 보호하려다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다. 오봉이야기의 초기판본인 「海音詩」와 「雲林縣採訪冊」<sup>1)</sup>에는 “오봉은 죽어 귀신이 되어,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역병을 일으켰다. 역병에 걸린 추족(鄒族)<sup>2)</sup>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무덤에 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혹은 그를 위해 신전을 짓고 제를 올렸다).”<sup>3)</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위의 판본과는 차이가 있다. 오봉은 대륙에서 아리산(阿里山)으로 건너가, 당시 그곳 현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청조 감풍(清朝咸豐)년간, 즉 19세기 상반기 오봉은 추족에게 살해된다. 당시 추족에게는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제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었는데, 부락에 역병이 돌게 되자, 부락민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이 그 풍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이

1) 劉家謀〈海音詩〉及其附文(咸丰五年, 1855年)과 倪贊元〈雲林縣採訪冊〉(光緒二十年, 1894年)  
2) 臺灣에 현존하는 9개 토착민 중 하나. 鄒族은 모두 3부족으로 나뉜다. 한 부족은 阿里山 집단으로, 嘉義縣 吳鳳鄉 일대에 거주한다. 또 한 부족은 那布 집단이며, 高雄縣 三民鄉 일대에 거주한다. 나머지 한 부족은 沙阿魯阿 집단으로, 高雄縣 桃源鄉 일대에 거주한다. 실제로는 세 부족 가운데 아리산 집단이 이 종족의 본 집단이며, 이들 민족에 대한 기록 또한 이 집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사전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0j1427a>  
3) 〈海音詩〉와 〈雲林縣採訪冊〉의 내용은 모두 baidu 백과를 참고하였다.

<http://baike.baidu.com/view/59090.htm>

오봉에게 가서 의견을 묻자 그는 “모일 모처에 붉은 옷에 붉은 모자를 쓰고, 흰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를 죽여서 제를 지내라”는 말을 하였고, 부락민들이 당일 지정 장소에 가보니, 오봉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고, 추족들은 활을 쏘아 그를 죽였다. 가까이 다가와 그의 모자를 벗기고 정체를 확인해 보니, 그는 바로 그들에게 존경 받던 오봉이었다. 그들은 비통에 빠져, 앞으로는 부락 옆 개천이 마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위의 이야기는 상기 초기판본과 달리 오봉을 자아희생을 통해 미개한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준,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다. 초기판본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한 나머지 귀신이 되어서 복수하는 오봉과 그의 원귀를 달래기 위해서 추족이 무덤에서 경의를 표하는 이야기는, 후에 오봉을 위해 별도의 신전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어, 오봉을 신격화시킴으로서 오봉이야기에 민간 신앙적 색채를 불어넣더니, 오늘날 보편적으로 알려진 오봉이야기는 자기희생을 통해 우매한 원주민을 교화시키는 영웅의 이야기로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 유교적 가치인 살신성인 정신이 부여된 흔적이 역력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의 무게는 후자로 치우친다. 왜냐하면 전자의 이야기가 그저 한족을 보호하려다 희생되었다는 것과 귀신이 되어 복수한다는 지극적인 이야기일 뿐 별다른 교훈이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요소들이 부족한 반면, 후자의 이야기는 살신성인 정신을 통한 원주민 교화는 물론 근대성을 대표하는 문명과 낙후성을 대표하는 야만을 대립시키기에 훌륭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이 내용은 1950년에서 1971년에 걸쳐, 대만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오봉(吳鳳)〉의 줄거리다. 李亦園, 〈傳說與課本〉, 《吳鳳及其相關問題之研究》, 國立編譯館出版, 1990년, 10-13쪽 참조.

## 2. 오봉 이야기-이야기 생산 및 생산기제

오봉이야기의 변화에는 일본 제국주의자와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다분히 정치적이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오봉이야기의 전모는 일본학자의 기록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에 맺은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대만을 할양받아 식민지로 삼았다. 곧이어 대만총독부가 세워졌고 본격적인 식민 침탈이 시작됐다. 그들은 '정부 소유 임야 및 장뇌 제조업 규제 규칙'을 만들어 원주민 땅을 국유지로 편입시켰고, 대만 원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10년간의 무력 진압정책을 펼치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원주민들은 중화제국의 최변경에 위치한 가장 개화되지 못한, 문명세계와는 거리가 먼 미개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 무력 진압의 역효과로 인해 일본 식민정부의 원주민 정책은 유희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오봉은 다시금 사람들의 시야 속에 등장하게 된다.

1904년 대만 총독부 민정장관이었던 後藤新平가 아리산 철로와 아리산 일대 삼림을 개발하기 위해 아리산을 시찰하다가, 오봉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별도로 일본 관방을 대표하는 학자 伊能嘉矩를 파견하여 오봉 고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터 일본 식민정부의 오봉 신화건설 계획은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가의 청장 津田義一은 오봉전(吳鳳傳)을 편찬하였고, 1912년 中田直久는 <살신성인통사오봉(殺身成仁通事吳鳳)>을 써서 오봉을 자기희생을 통해 타인을 구한 위인으로서 묘사하였다. 가의청장은 또 오봉묘(吳鳳廟)를 세우고, 後藤新平로 하여금 오봉을 기념하는 비문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 비문에서 추측은 "야만스런 열등민족"으로서, 오봉은 "관대하고 자애로운, 자아희생을 통해 仁愛 관념"을 전파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5) 바로 이때부터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리번(理蕃)정책'의 정당성은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한족이 맡았던 교화의 임무를 잘 받들어 이제는 일본식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겠다

5) 李道明, <由活動影像看鄒族>, 《山海文化》 제10기, 1995, 5, 48쪽.

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관리 오봉을 모범으로 삼아 원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청나라 관리들의 이민족 통치에 대한 무능함과 한계를 드러내며 청나라보다 더 개화된 일본 식민정부가 훨씬 더 잘 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식민정부에서는 원주민 자체의 야만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예컨대, 이들 원주민의 꺾수(截首: 죽이려고 목을 자름)풍습을 강조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이들 원주민들의 야만성을 부각 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원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야만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본 같은 문명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선전하였다.<sup>6)</sup>

그렇다면 오봉 이야기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누구의 시각으로서 오봉을 보는가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추족들에게는 <정성공(鄭成功)이야기>, <오봉(吳鳳)이야기>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주지하듯이 정성공은 명나라 멸망 후, 반청복명(反靑復明)의 깃발을 내걸고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이고, 오봉은 청나라 지배시기 대만으로 파견된 한족 관리다. 松田吉郎의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자면 원주민(추족)의 경우는 한족인 정성공이나 오봉에 관해서 이야기 속 인물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그들로 인해서 추족이 “평지에서부터 점점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인 아리산에 이르렀다”라고 말 하면서 “그전에 그들을 통치한 바 있던 네덜란드인과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한인의 경우는 점차 자신들 땅을 빼앗았으며 그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였다.<sup>7)</sup> 그들이 대만으로 건너온 한족을 그들 말로 ‘푸투(土匪)’라고 하였다는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추족과 한족 사이에는 지배와 예속이라는 뚜렷한 대

6)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원주민 일본관광 활동에서 선정된 추족을 포함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군무국참모장은 그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광경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 일본도 전쟁 시엔 사람의 머리를 베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풍습을 없애고 천리(天理)인도(人道)에 순응한 결과 진보할 수 있었으니, 그들도 이를 따라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일본과 같이 번창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鈴木作太郎, 《台湾の蕃族研究》, 台北:台湾史籍刊行會, 1932年, 376, 呂紹理, 《展示台湾》, 麥田出版社, 2011, 106쪽 재인용.

7) 위미즈노 나오키 외 지음/정선태 옮김, <대만선주민과 일본어 교육>,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처럼, 2007년, 176-177쪽 참조.

립관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일본 통치자에 대해 추족들은 일본 통치자가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1895년 아리산 '총두목' 우온과 '부두목' 모루가 일본에 귀순하면서부터 순조롭게 일본통치가 진행된다) 그들을 "형제"라 호칭할 만큼 살갑게 대했다.<sup>8)</sup> 일본은 당연히 그들의 이런 심리를 심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추족들이 생각한 것 같은 자애로운 보호자가 결코 아니었다.

당시 그 어떤 원주민들도 추족처럼 친일적이지 않았던 상황에서<sup>9)</sup>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에 반항적이었던 대만 한인들과의 관계 모색과 추족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서, 오봉이야기를 만들어 한인들에게는 문명인(개화된 자)으로서의 이미지를, 추족들에게는 미개한 자의 이미지를 고정화시켜 버리고, 한인인 오봉이 완전히 깨뜨리지 못한 원주민(추족)의 원시성 파괴(타파)를 한족보다 한 단계 더 문명화된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으로서 공시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민속학자, 역사학자를 통해 오봉관련 이야기를 새롭게 재조해 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인들에 대한 감정이 곱지 않았던 추족들이 과연 이 오봉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추족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감이 일었을 것이다. 한족에게는 영웅인 오봉이었지만, 추족에게 오봉은 한족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장사꾼으로서 늘 추족을 속이는 악한이었기에, 이에 죽임을 당한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민 독법과 탈 식민 독법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의 초기 발굴과 이야기 재조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추족으로 부터의 분노의 화살은 자연 한족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되고, 일본 식민화 교육은 더욱더 실효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족과 원주민간의 거리감은 그들 통치에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일본 패망 후 장개석 정권이 세워지고 당시 추족으로서 일본 식민화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이후 교사가 되어 추족 아이들에게 교육했던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다.

8) 상동.

9) 제48회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시디그 발레(賽德克·巴萊)>의 무사(霧社)지역의 부족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저항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가장 좋은 돌은 무엇입니까?’ / ‘보석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돌(石)은 무엇입니까?’ / ‘대리석입니다.’, 그럼 ‘가장 나쁜 돌(石)은 무엇인가요?’ /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교사는 ‘장개석(蔣介石)입니다’라고 말하였다”<sup>10)</sup> 장개석은 중일전쟁기간 일본과 싸운 상대로서 국민당 지도자를 칭하는데, 당시 추족의 경우는 국민당이나 공산당에 대한 별 다른 인식이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교육을 받은 추족 선생의 입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당시 추족의 식민화 실상을 분명히 보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개석 국민당 통치시기에 또다시 대대적으로 오봉 영웅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한인들에게는 민족동화정책 추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상 원주민의 입장에서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 정부의 대만 통치와 중국화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일본 제국주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별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 식민화 교육을 받았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은 오래전부터 대만에 살았던 기존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대상이었다. 국민당의 시각에선 대만의 한인들은 저급한, 자신들 보다 덜 개화된 대상에 불과했고, 원주민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국민당 정부의 입장에서 오봉 영웅화 혹은 신성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국민당 정부는 일본 식민정부에서 강조했던, 오봉의 仁義服人、捨身奉公 측면을 그대로 부각시키고, 일본 식민통치기간동안 기존의 대만 거주 한인들을 밀어내고 일본이 차지했던 1등 국민이라는 문화적 위치를 전쟁에서 패한 일본의 대만 철수를 기회로 차지하고 들어오는데 오봉의 영웅화 작업을 이용했던 것이다. 일본식민주의자들과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의해 재조된 오봉담론 속에는 원주민 추족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았다.

1987년까지 38년간 유지되었던 계엄령이 해제되기 불과 2년 전, 1985년 드디어 추족들이 ‘부끄럽다! 국립편역관’, ‘오봉의 관광화를 거부한다’, ‘오봉의 신격화를 거부한다’, ‘미안하지만, 오봉 당신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라는 항의 플랜카드

10) 미즈노 나오키 외 지음/정선태 옮김, <대만선주민과 일본어 교육>,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치림, 2007년, 186쪽 인용.

를 들어올렸다. 원주민들이 그간의 식민주의자들의 언술과 재현에 항의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적극적 몸짓을 공식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식민담론을 거부하였다. 이후 오봉 신화의 타도는 대만 원주민 운동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1987년 인류역사상 최악의 계엄이 해제되고, 9월9일 오봉 살신성인 218주년 기념일에 추족 추장 등 마을 사람들과 19개 원주민 단체들이 가의시(嘉義市)에서 원주민 인격모독에 대한 항의운동을 벌이고, 또 가의 현장(縣長)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요구조건을 제기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과서의 오봉신화를 없앤다. 둘째, 오봉기념관은 대만 한족 원주민족 평화기념관으로 바꾼다. 셋째, 가의 기차역 앞 오봉동상을 없앤다. 넷째, 오봉향의 향명을 아리산향으로 바꾼다. 그 결과 기차역 오봉 동상은 주민들 스스로가 철거하였고, 교과서의 오봉관련 고사는 다음 해 없어졌으며, 1989년 오봉향도 아리산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봉신화의 타도가 대만 원주민 운동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는 것은 대만 원주민이 오봉신화를 종족기사와 문화억압(탄압)의 도구로서 간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오봉 이야기-이야기 유통 및 재생산

#### 1) 대만의 경우

1912년 일본 문무성(우리의 교육부)은 오봉이야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고, 대만 총독부에서는 대만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오봉이야기를 알리도록 하였으며, 초등학생들에게 가무극을 통해서 위대한 오봉을 예찬하도록 명하였다. 1920년 《台灣通史》에 기록된 〈吳鳳列傳〉에서 오봉은 한족의 민족영웅으로서 묘사되었다. 1925년에는 또 南部邦彦의 무대극 〈의인오봉(義人吳鳳)〉이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대북(臺北)에서 공연되어 北白川宮親王(기타시라가와 노미야요시히)의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11) 책이나 연극이라는 매체보다도 훨씬 더

11) 李道明,〈由活動影像看鄒族〉,《山海文化》제10기, 1995, 5, 48쪽.



강력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오봉을 이용한 식민화 교육도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영화를 통한 것이었다.

193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대만도 전시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대만에 대해서 또 다시 엄격한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는 자원의 결핍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1931년에서 1937년까지 대만은 5편의 영화만 제작하게 되는데, 이 또한 대만 일본 합작 형식으로 만들어진 일본인이 감독 영화였다. 이 5편 가운데 <명호 지산암(嗚呼芝山岩)>과 <영예군부(榮譽軍夫)>는 일본 식민정부의 선전영화이고, <괴신사(怪紳士)>는 탐정영화며, <의인오봉(義人吳鳳)>은 다큐멘터리, <망춘풍(望春風)>은 애정비극영화다. 1932년 <의인오봉>이 대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일본으로 수출된 몇 편 안 되는 대만영화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줄거리는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일본 식민정부의 입장에서 본 야만스런 아리산 추족의 이야기였다<sup>12)</sup>. 그간 대만 원주민에 대한 야만적 이미지는 몇몇 화보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일본인이나 한인(漢人)들에게 보여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성을 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그것도 사실성이 강조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대만 원주민들의 야만, 잔혹, 미신적이라는 전형화된 이미지를 제작의도에 따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대만사람들에 대해서 순종적이거나 순종적이지 못한 대만 사람, 혹은 비교적 개화되었거나, 개화되지 못한 대만사람으로 구분 지었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은 강렬한 권력 지배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민(良民)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폭민(暴民)으로서 간주하였다.<sup>13)</sup> 이러한 구분은 대만 원주민에 대한 청대 관방의 태도와도 흡사하다. 대만에 이주한 한족은 원주민을 두루 '번인(番人)'으로 명명하였고, 대만원주민을 호명하는 청대 공식문서에도 '番'이라는 글자를 사용해 지칭했다. 그리고 이들을 '숙번(熟番)'과 '생번(生番)'으로 나누어 비교적 개화된 원주민과 전혀 개화되지 않은 원주민을 구별 짓고, 이 양자에 속하는 원주민은 '화번(化番)'이라고 명명하였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익힌 음식과 날 음식을 지칭할 때 쓰는 숙

12) 李道明, <由活動攝影看鄒族>, 《山海文化》 제10기, 1995, 5, 49쪽.

13) 陳芳明, 《殖民地學鄒: 現代性與台灣史觀》, 麥田出版, 2011年, 267-270쪽.

熟, 生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서 드러나는 지배자의 인식과 폭력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sup>14)</sup> 일본점령시기에도 처음에는 '생변', '숙변'이란 호칭이 계속 사용되었으나, 그들은 番人을 중국 변방의 종족을 뜻하는 '蕃人'으로 바꾸어 칭했다. 番人이건 蕃人이건 이 용어에는 야만과 통하고, 그들 자신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야만의, 미개한 상태에 처해 있는 대상이었다.<sup>15)</sup> 이러한 관념은 대만에 와있는 일본인이 1등 국민, 한인은 2등 국민, 원주민은 3등 국민이라는 차별을 강제화하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이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리번(理蕃)정책'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좋은 기제가 되었다.

1946년, 국민당 정부의 집권 체제하에서 추족들의 거주지인 아리산향(阿里山鄉)의 명칭은 오봉의 정신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오봉향(吳鳳鄉)으로 바뀌어졌고, 195,60년대엔 오봉을 제재로 한 영화 <아리산풍운(阿里山風雲)>(1950년), <아리산의 매(阿里山之鶯)>(1957년)와 <오봉(吳鳳)>(1963년 금마장 최우수 사회교육특별상 수상)이 제작되어, 오봉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1950년에서 1971년에 걸쳐, 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경우, 「국어」 교과서에 <오봉(吳鳳)>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1969년부터 1987년까지는 초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에도 <정의(正義): 사생취의(捨生取義)적 오봉(吳鳳)>란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1979년부터 1987년까지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2. 향현고사: 나쁜 풍속을 개혁하다(改革懷風俗)>이란 내용이 수록되었다. 음악과목에도 <오봉가(吳鳳歌)>가 있었는데, “하늘에는 태양이, 인간 세상엔 오봉이 있네, 오봉은 어둠 밤의 달, 우리의 눈. 아리산에는 신목(神木)이 있고, 우리 마음엔 오봉이 있네, 그가 우리를 발 갈게 가르쳤고, 옷을 짜도록 가르쳤으며, 글을 읽도록, 바느질 하도록 가르쳤네”란 가사의 노래로서, 오봉은 대단히 계몽적인 인물로서

14) 민정기, <청말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가 보여주는 동아시아세력 관계 재편 속 대만 원주민 형상>, 《아시아문화》,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57쪽.

15) 1930년 일본 통치에 반항한 '무사사건(霧社事件)'을 계기로 일본 통치자는 이 호칭을 버리고 '생변'을 '고사족(高砂族)', '숙변'을 '평포족(平埔族)'이라 부르게 됐다. 중화민국시대 '고사족'이라는 말은 '선주민' 또는 '원주민'으로 바뀌었지만, '평포족'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미즈노 나오키 외 지음/정선태 옮김, <대만선주민과 일본어 교육>,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처럼, 2007년, 170쪽.

하늘의 태양, 밤을 밝히는 달과 비견될 만한 위인으로서 간주되었다.

사실상 교과서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순응적 해독을 당연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 일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원주민 학생조차도 교과서에 수록된 오봉이야기를 저항적으로 읽어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아이들은 원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고 또 원주민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원주민 아이들은 오랫동안 한인아이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봉신화를 삭제하도록 국립편역국에 통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게 되었지만, 수 십 년 동안의 교육을 통한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봉이야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수록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걸출한 문학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재탄생 되었다. 2천여 행에 이르는 장편 시극<오봉>의 저자 양목(楊牧)은 1940년 대만 출생으로 동해대학(東海大學) 외문과(外文科)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석사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비교문학 박사를 취득 후, 현재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로 있는 저명한 문학가다. 양목이 오봉을 소재로 작품을 출판한 것은 1979년으로서, 그는 오봉의 살신성인 고사를 초기 대만 이민사에 있어서 가장 칭송할 만한 사적으로서 간주하였다. 양목의 시 속에 그려진 오봉의 형상은 흡사 예수의 형상을 닮아 있다. 작품 속 그는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족의 단결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이었다. 양목의 작품 속에서 아리산 원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비와 역병의 발생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자, 다시금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주민 무리들에게, 이를 만류하는 것이 별 소용없을 것이라 느낀 오봉은 자신의 희생을 결심한다. “그들은 이미 나를 선택했다/ 고집과 진심을 대표하는 나/ 그렇다, 고집과 진심은/ 우리 전통지식인의 가장 기본적인 품행이다 ……//3천 년간 우뚝 솟았던/우뚝 솟았던 지식인의 그림자

로서 가히 인정받을 만한 당신 같은 이가/ 어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을”<sup>16)</sup> 양목은 오봉을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전통지식인의 고상한 품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행하는 인물로서 묘사하였다. 이러한 고상한 품격을 지닌 오봉은 원시인의 야만성과 원시성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 양목은 원시인들이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치자고 주장한 것 또한 비록 잘못된 것일망정 이것도 마을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한다. 결국 아리산 원주민들은 오봉의 죽음의 함의를 깨닫고는, 오봉이 그들을 이끌어 주고 새로운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야만과 문명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가르쳐주었음에 감사하였다. “그의 모습과 인격도 일찌감치 우리의 모습과 인격 속으로 녹아 들어/ 우리의 생명을 만들었고/ 우리가 우매하고 이기적이지 않도록/우리가 신중해 지도록 가르쳤다”.<sup>17)</sup>

양목은 시극을 통해 사명감에 가득 찬 인간 오봉과 그의 희생을 통해 끝내 각성한 원시인들의 참회와 구제를 표현해 내었다. 양목은 시를 통해서 아름답고 장엄한 인격 또는 조화롭고 평안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sup>18)</sup>. 오봉 시극은 바로 이러한 작가 이념의 실천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 2) 한국의 경우

한국에 전해진 오봉이야기에 대한 최초기록은 1959년 9월 9일 동아일보 3면 기획/연재 기사란 에서다. 기사는 “산속의 변족 20만, 인육을 금토록 교육한 오봉이야기, 이젠 제법 신문을 화를 섭취”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기사 속에서 변족들은 “인육

16) 潘亞暎,〈犧牲是爲了愛——評台灣詩人楊牧的詩劇《吳鳳》〉,《台灣研究集刊》,1985年03期,75-79쪽 참조. 1979년 출판된 吳鳳詩劇을 구하지 못하여, 논문에 인용한 시구는 潘亞暎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17) 상동.

18) 시극〈오봉〉보다 앞서 발표된 시집 《북두행(北斗行)》 후기에 실린 내용. 《북두행(北斗行)》에는 오봉 시극의 서시 격이라 할 수 있는 〈오봉〉이라는 시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張芬齡, 陳黎, 〈楊牧詩藝備忘錄〉,《第四屆現代詩學研討會》(1999年5月29日彰化師大) 참조.

<http://www.hgjh.hlc.edu.tw/~chenli/yangmu.htm>

을 먹고 조상의 제삿날 타족의 목을 베어 제상에 올려놓았다”, 1895년 청. 일 전쟁에서의 승리의 대가로 “일본이 통치권을 얻은 후 무력으로 변족을 산속으로 몰아 넣고 본격적인 식민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았다”, “오봉이라는 위대한 교육자가 대만을 찾아와서 변인들을 교화하기 시작했다”, 사나운 변인들도 오봉을 하나같이 우러러 보고 그의 말이라면 순종했지만, 사람의 목을 베어 바치는 것에 대한 오봉의 만류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 “오봉이 자신을 희생해 그들의 악습을 타파했다”, 바로 이러한 변족이 지금은 현대문화의 섭취하기에 바쁘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며 종교도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변족의 식민화 과정과 그 결과를 구구절절이 묘사하고 있다. 19)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 디포우의 작품 《로빈슨 크루소》에서 크루소가 원주민에게 영어와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문명화시키는 과정과 흡사하다. 신문기사에서 추족은 제삿날 타족의 목을 베어 제상에 올려놓는 변족에서 인육까지 즐기는 변족으로, 또 오봉의 신분은 통사에서 위대한 교육자로 바뀌어 있고, 이들이 일본 식민정책으로 인해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상의 넋을 기리는 목적으로 타족을 죽였던 추족이 한국 신문 보도에서는 인육을 즐기는 민족으로 더욱더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묘사되었다면, 오봉 형상은 기존 통사 또는 상인의 신분에서 위대한 교육자의 신분으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추족과 오봉의 형상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놓고, 또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습득과 기독교 전파를 현대문화의 섭취로 인식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 글의 필자는 자신도 식민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에 의한 대만 원주민의 식민화 과정을 근대화 과정으로 인식하는 등 그들이 만들어낸 식민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봉이야기가 한국교과서에 수록된 시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3차 개정시기인 1975년부터다. 물론 오봉이야기가 단독으로 소개된 것은 아니고, 서울대 철학과

19) 고재언,〈대만이모저모(6)〉,《동아일보》,1959년,9월9일,3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90900209203007&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9-09&officeId=00020&pageNo=3&printNo=11478&publishType=00020>

교수 손명현의 〈어떻게 살 것인가?〉란 글을 통해서이다.<sup>20)</sup> 이 글은 4차 개정기인 1984에도 재수록 되어 1989년까지 수록되었고, 5차 개정시기인 1990년에 그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란 글의 서두에서는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을 소개한다. 한 사람은 6.25전쟁 때 강원도 상원사의 주지를 지냈던 방한암(方漢巖) 선사(禪師)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던 오봉吳鳳이다.

방한암 선사는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유명한 고찰 가운데 하나인 상원사(上院寺)의 주지였던 분으로, 6.25때 적군에게 유리한 엄폐물(掩蔽物)이 될 소지가 있어 작전상상원사를 불태워야 하는 상황에서 죽음으로써 절을 지켰던 선사다. 선사는 법당에서 단좌(端坐)한 채 절명(絶命)해 있었고, 그 장엄한 광경을 본 국군은 그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국어 교과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님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도(賭)한 선사의 높은 행동, 그리고 비록 군인으로서로는 잘못이라 할 지라도, 그 높은 행동 앞에 옷깃을 여미고 떠난 그 군인들의 가장 인간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큰 감명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주기에 족하다”라고 묘사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오봉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봉은 중국에서 건너간 선교사로서, 아리산(阿里山) 토인들의 교화에 힘썼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추장(酋長)으로 추대되어 하느님같이 숭배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교과서에서 오봉은 선교사이고 아리산 원주민은 토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토인이란 표현은 문명화 되지 않은 원주민들을 낮잡아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왜 저자는 오봉을 선교사로 그렸을까? 동아일보 속에 묘사되었던 위대한 교육자는 십 수년 만에 선교사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과서 내용 서두에서 한국 불교계 인사(방한암 선사)의 거룩한 죽음을 예로 든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봉을 기독교 인사인 선교사로 표현 한 것일 수도 있다. 오봉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던 때인 박정희 집권시기의 한 일화

20) 손명현,〈어떻게 살 것인가〉, 《국어》교과서, 제4차 개정판본, 1984년.

가 있다. 한국은 1972년부터 1만원 지폐를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 1만원 지폐 도안은 석굴암과 불국사를 소재로 하여 박정희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발행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대신 세종대왕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은화(돈의 숨은 그림)는 석굴암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듯 당시 종교계의 대립은 매우 선명했던 터라, 신분이 모호했던 오봉을 선교사로 그렸을 수 있다. 혹은 일반적으로 원시문명과 대비해서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종종 사용되었던 기독교 문명을 고려해서 오봉을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그렸을 수 있다.

둘째, 아리산에는 오봉의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오봉은 청나라의 목사(牧士)라는 직책을 가진 관리로 기록되어 있다. 추측건대 저자가 목사를 기독교의 목사(牧師)로 착각하여 선교사로 그렸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켜낸 두 인물의 위대함을 그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자는 한국 쪽 이야기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선사의 죽음에 숙연해져서 상원사 소각 명령에 불복한 군인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1) 오봉관련 이야기에서는 문명과 무지의 대비가 명확히 드러난다. 대만 원주민들은 오봉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 제를 지내는 악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결국 오봉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악습을 중단 시킬 수 있었고, 원주민들은 하느님같이 받들던 오봉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악습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가르침을 주고자한 오봉의 살신성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만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원주민과 오봉의 관계가 무지 몽매한 노예 프라이데이(로빈슨 크루소가 그를 금요일에 만났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와 우월한

21)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던 당시는 군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 방한암 스님이 절의 소각을 막은 것은 맞지만 입적하신 것은 이보다 좀 뒤의 일이라고 한다. 아마도 방한암 스님에 관한 선우휘의 단편 소설 '상원사'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 같다. 선우휘 鮮于輝의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한암 스님이 자신도 함께 태우라는 단호함에 한 국군장교가 상원사 문밖만 태워 소각의 증거물로 삼고 돌아가는 바람에 상원사가 보존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인 로빈슨 크루소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22)</sup> 이것이 참다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글의 소재로 적합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1989년 한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란 문장이 제외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대만 교과서에서 오봉이야기가 삭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 오봉이야기는 종교관련 연설문에서 수시로 등장하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오봉은 선교사로 언급되는데 비해 가톨릭에서 오봉은 종종 선사(禪師)로 언급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오봉은 여전히 살신성인을 실천한 인물로서 종교계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겠다.

#### 4. 나가는 말

이 글은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장장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던 대만 원주민 관련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이 이야기의 최초 생산과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생산기제(식민이데올로기) 및 유통, 재생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킨 것이다.

초기판본에서 보았던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한 나머지 귀신이 되어서 복수하는 오봉과 그의 원귀를 달래기 위해서 무덤에 경의를 표하던 추족들의 이야기는, 이후 판본에서는 무덤에 경의를 표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아예 오봉을 위해 별도의 신전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어, 오봉을 신격화시킴으로써 오봉이야기에 민간 신앙적 색채를 붙여넣더니,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대만 국민당 정부에 의해 생산, 유통된 오봉이야기는 자기희생을 통해 우매한 원주민을 교화시키는 살신성인 정신의 실천자로서 탄생되었다. 필자가 최초로 접한 오봉이야기는 바로 초기 판본과 달리 자기희생을 통해 미개한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준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야기였다.

전자의 이야기가 그저 한쪽을 보호하려다 희생되었다는 것과 귀신이 되어 복수한다는 지괴적인 이야기일 뿐 별다른 교훈이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요소들이 부족

22) 박종성, 〈탈식민주의 독법〉,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11년 판, 68-70쪽 참조.



한 반면, 후자의 이야기는 살신성인 정신을 통한 원주민 교화는 물론 근대성을 대표하는 문명과 낙후성을 대표하는 야만을 대립시키기에 훌륭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프로파간다 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당시 일본 식민주의자와 일본의 식민통치 이후 대만을 점령하게 된 국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상기 교훈적, 교화적이라는 단어는 대만 원주민 추족의 시각에서는 굴욕적, 차별적 일면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 피식민의 경험이 있던 우리가 이러한 식민주의적 담론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여 오봉을 참다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준 선구자로서 대만 원주민들은 인육을 즐기는 무지몽매한 대상으로서 20년 가까이 의식의 한 편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대만에서는 1988년이래로, 한국에서는 1989년이래로 교과서 내용에서 오봉이야기는 삭제되었지만, 지금도 한국에서 오봉은 종교인들의 설교문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한국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살신성인을 실천한 선각자로 대만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미개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 역시 아무런 맥락없이, 개화된 타 지역의 종교인이 원주민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자기희생으로써 특정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 《參考文獻》

- 고재언, <대만 이모저모(6)>, 《동아일보》, 1959년, 9월9일, 제3면.  
 손명현, <어떻게 살 것인가>, 《국어》 교과서, 제4차 개정판본, 1984년.  
 潘亞噉, <“犧牲是爲了愛”——評台灣詩人楊牧的詩劇《吳鳳》> 《台湾研究集刊》, 1985年03期.  
 李亦園, <傳說與課本>, 《吳鳳及其相關問題之研究》, 國立翻譯館出版, 1990년.  
 李道明, <由活動影像看鄒族>, 《山海文化》第10期, 1995年.  
 박종성, <탈식민주의 독법>,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11년 판.  
 미즈노 나오키 외 지음/정선태 옮김,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치림, 2007년.

민정기, <청말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가 보여주는 동아시아세력 관계  
재편 속 대만 원주민 형상>, 《아시아문화》,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陳芳明, 《殖民地摩鄧:現代性与台湾史觀》, 麥田出版, 2011年.

呂紹理, 《展示台湾》, 麥田出版社, 2011年.

브리태니커 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0j1427a>

baidu 백과

<http://baike.baidu.com/view/59090.htm>

張芬齡·陳黎, <楊牧詩藝備忘錄>, 《第四屆現代詩學研討會》(1999年5月29日  
彰化師大)

<http://www.hgjh.hlc.edu.tw/~chenli/yangmu.htm>

#### 《中文提要》

吴凤 (1699年—1766年) 字元辉, 清福建省平和县人, 任台湾清治时期之嘉义通事, 死於汉人与原住民的纷争之中。在吴凤传说的早期版本是, 如此: 吴凤死后变成鬼, 在杀害他的人中引发瘟疫。遭受瘟疫的邹人为他建造神殿, 像神一样祭拜他。与早期版本相比, 一般的说法强调吴凤具有儒家美德、自我牺牲的英雄, 并且因为这种德行被整合到当地的信仰系统之中。

据说, 被流传到现在的关于吴凤的一般说法是以日本学者的记录为首的。1895年, 台湾因甲午战争被割让给日本。日本殖民者遭受到台湾原住民的顽强抵抗, 经过十年的武力镇压后, 日本殖民政府对原住民开始采用比较温和的政策。这时, 吴凤重新回到人们的视野。吴凤故事对日本殖民政府维持其「理蕃政策」之正当性有正面的效果。这个「理蕃政策」是照样被蒋介石国民党政府所接受。

1987年解除了人类历史上最长的戒严, 终于发生了“吴凤事件”, 台湾原住民提出几个要求: 一删除国小教科书里吴凤神话, 二吴凤纪念园改为台湾原主族和平纪念馆, 三拆除嘉义火车站前吴凤铜像, 四吴凤乡还原乡名为阿里山乡。1988年教科书上关于吴凤的故事被删除了。其实早在戒严时期, 原主民对吴凤神话就已出现抗议声浪。台湾原主民把吴凤神话看成是种族歧视与文化压迫的一项工具。因此打

倒吴凤神话才会成为台湾原主民运动的首要目标。

吴凤故事最初收录於韩国教科书的时期是从韩国语教科书第3次改正时期(1975~1983)起。吴凤故事一直再收录於第4次改正时期1984~1989年，到第5次改正时期1990年才被删除了。

这个故事是由殖民政府捏造的。但是有被殖民经验的韩国人把‘这个殖民谈论没经过过滤就吸收，结果我们把吴凤看成对于如何度过人生这个问题，会给了明确的解答的先觉者，而把原主民看成吃人肉的愚昧无知的对象。

**關鍵詞** : 吳鳳 台湾原住民 理蕃政策 种族歧视 文化壓迫 殖民談論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